

# 연구제목: 걷기실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은 지역에 따라 다른가?

이효영\*, 손지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연구원

**[연구배경]** 최근 건강행태 및 건강결과들의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시행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에 대한 대표 통계를 생산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확인하고 있으며, B시도 여러 가지 건강지표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걷기실천율은 2015년에서 2020년 30%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 간 건강격차 연구의 일환으로 B시의 2015-2020년 걷기실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걷기실천율이 높은 S구와 지속적으로 낮은 N구의 걷기실천율과 관련된 요인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두 지역의 걷기실천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의 걷기실천율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두 지역의 걷기실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만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2020년의 6개년 자료를 분석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S구의 5,454명, N구의 5,460명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대, 주택유형, 1인가구여부, 가구월소득,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직업분류에 따른 걷기실천율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술통계 및  $X^2$ 과 F-test를 통해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걷기실천율에 따라 관련요인의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기본적으로 B시 전체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걷기실천율이 높았고, 두 지역 모두 남성이 걷기실천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가장 걷기실천율이 낮은 연령대는 N구는 60대, S구는 20대가 낮아 다르게 나타났다. B시 전체에서는 1인가구의 걷기실천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1인 가구의 걷기실천율이 두 지역 모두 낮게 나타나, 두 지역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두 지역은 주택유형에 따른 걷기실천율은 정반대로 나타나 S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걷기실천율이 높은 반면, N구는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의 걷기실천율이 높게 나왔다. 걷기실천율이 높았던 S구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을 보이는 가구도 걷기실천율이 높았으나, 걷기실천율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던 N구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N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걷기실천율이 높아졌으나, 원래 걷기실천율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S구의 경우는 초등학교이하의 졸업자의 경우도 걷기실천율이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두 구 모두 미혼이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걷기실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역사회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마다의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잘 살펴 표적집단을 설정시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N구의 걷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60대, 1인 가구, 미혼자, 아파트 거주자, 저소득자의 걷기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걷기실천율, 지역, 건강격차, 관련요인

**연락처:** 발표자 또는 제 1저자 성명: 이효영 / 소속: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mail: [princesa@dongseo.ac.kr](mailto:princesa@dongseo.ac.kr)

**연구지원:**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22-11-002#).

# 연구제목: 경찰관의 및 주관적 건강상태 및 관련 요인 연구

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연구배경]** 경찰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야간 근무에 노출되고, 이러한 작업 환경은 건강에 영향을 미쳐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하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찰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건강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SRBH)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2021년 우리나라 경찰건강을 설문하고, 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단면조사연구이다. 이 조사는 2021년 8월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자는 21세에서 60세 사이의 경찰관 6,5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동서대학교로부터 기관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1041493-A-2021-01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으로는 성과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등이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X^2$ 분석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확인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자기 평가 건강과 관련된 요인과 영향정도를 95% 신뢰 구간(CI)과 함께 수정된 오즈비(OR)를 제시하였다. 모델에는 다양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군, 결혼 여부, 학력, 주관적인 경제 수준, 근로 관련 변수), 건강 상태(이환 변수, 활동 제한 일수, 취침 일수 등 포함), 건강행동 (흡연 상태, 음주, 식습관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고소득자, 남성, 50대, 짧은 근무 기간, 야간 근무 없음, 휴가가 많을수록, 수면 시간이 증가할수록, 거의 매일 아침 식사, 금연, 운동 시간 증가와 강한 관련이 있었다. 적은 작업 부하로 긍정적인 건강 행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주관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와 휴식은 경찰관의 업무에서 자기평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모니터링하고 개인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어]** 주관적 건강상태, 경찰관, 관련요인, 영향

**연락처:** 발표자 또는 제 1저자 성명: 이효영 / 소속: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mail: [princesa@dongseo.ac.kr](mailto:princesa@dongseo.ac.kr)

**연구지원:** 본 연구는 경찰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2020-2021)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연구제목: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

이효영\*<sup>1</sup>, 임혁<sup>1</sup>, 김규민<sup>2</sup>, 손슬기<sup>3</sup>

동서대학교 교수\*<sup>1</sup>,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sup>2</sup>,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sup>3</sup>

**[연구배경]**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4)는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찰관과 같은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사례 깊은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야간근무시간 자체의 단축,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산업안전보호장치 확보,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 배치,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추가적인 휴식 제공(time-off), 수당 또는 유사한 이득 제공),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한 협의(야간근무 스케줄, 산업보건 장치, 사회 서비스 등) 등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유지 및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목적]** 따라서 야간근무 이외에 외국 경찰관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20편의 보고서 및 논문고찰, 그리고 각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구글을 통해 ‘police’ 와 ‘guideline’ 또는 ‘policy’ 또는 ‘support system’ 등의 검색어로 보고서 및 문헌을 검색했고, 가장 최신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근로시간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찰관은 예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간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만 야간근무에 배치되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주간 평균적으로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되며,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상적 휴무(compensatory rest)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초과근무가 의무초과근무(Mandatory overtime)와 선택초과근무(Voluntary overtime)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상부의 승인 하에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근무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2차 고용(secondary employment)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시 기본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가 및 법정 공휴일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정에 없던 의무초과근무는 1.5배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2주 76시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연속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주간 및 오후 근무가 10시간 초과, 야간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분할교대(split shift)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recall을 요구받을 때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통근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게 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해야 할 시 반드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긴 근무시간과 휴가부족으로 결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특성상 ‘경찰이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찰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경찰관, 건강보호, 지원제도, 근무조건

**연락처:** 발표자 또는 제 1저자 성명: 이효영 / 소속: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mail: [princesa@dongseo.ac.kr](mailto:princesa@dongseo.ac.kr)

**연구지원:** 본 연구는 경찰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2021-2022)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연구제목: 경찰관의 근무특성과 건강

이효영\*<sup>1</sup>, 임혁<sup>1</sup>, 김규민<sup>2</sup>, 이규희<sup>3</sup>

동서대학교 교수\*<sup>1</sup>,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sup>2</sup>, 고신대학교 교수<sup>3</sup>

**[연구배경]** 사회 속의 인간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삶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직장 속의 근무관련 특성은 소속된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대의 다양한 직업 중 경찰관의 업무는 다양하며, 위험한 업무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관은 이러한 업무 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찰관의 근무관련 특성과 이들의 삶의 질 및 건강(스트레스, 우울,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현재 전체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전체에 설문을 경찰청 인트라 네트워크 및 핸드폰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 응답한 인원은 6,591명이었으며, 이는 총 경찰공무원 주 5.22%에 해당하였다. 총 조사문항 중 근무관련 특성으로 총 근무기간, 주당 업무일수, 출퇴근시간, 휴가·조퇴·연가 사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건강은 건강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우울, 만성질환 수 등이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총 근무기간별로는 총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총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만성질환의 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과는 총근무기간별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이에 대한 알람과 관리가 필요하며, 경력 몇 년 이상의 경우 좀 더 강화된 건강관리제도(건강검진제도)와 안식월, 안식주 등을 주어 이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업무일수별로는 업무일수가 주 6일인 사람은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이 높았으며, 부정적 건강인식이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만성질환 수가 많았다. 야근일수별로는 야근이 없는 사람에 비해 하루라도 야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우울이 높았으며, 야근일수가 6-10일인 사람은 스스로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았다. 야근일수가 없는 사람에 비해 야근일수가 1일이상인 경우는 직무관련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출퇴근시간별로는 1시간이상인 사람이 1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안 좋았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상인 경우는 1시간미만인 사람에 비해 우울이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상인 사람은 출퇴근시간이 1시간이내인 사람보다 직무관련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휴가, 조퇴, 연가 사용인식 별로는 휴가, 조퇴, 연가사용이 잘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았고, 우울이 낮았으며,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만성질환수는 적었다. 또한 휴가, 조퇴, 연가사용이 잘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직무관련 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다. 이들의 건강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건강관리제도 구축을 하는 등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경찰관, 건강, 근무특성, 스트레스, 우울

**연락처:** 발표자 또는 제 1저자 성명: 이효영 / 소속: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mail: [princesa@dongseo.ac.kr](mailto:princesa@dongseo.ac.kr)

**연구지원:** 본 연구는 경찰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2021-2022)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